



특집 _ '2024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장혜영(시) · 조성국(소설) · 이명란(수필 · 수기)
 기획 _ 121년 한인 미국 이민사에 새로운 장 연 쾌거
 이슈 & 화제 _ 재미동포,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418억원 기부
 '입양인들의 고향'...경기도 파주 엄마품동산 벽화 제막식
 정책 돋보기 _ "국내 고려인 청소년은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 인식해야"



“한인이 한국어 안 배우면 ‘기득권 포기’ 하는 것”

한글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달라…미국서 영어는 ‘생활’, 한국어는 ‘뿌리’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미국 네바다주 리노 한인회 회장이 지난 2018년 10월 세계한인회장회의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리노 회장이 내가 발간한 ‘한국어 속뜻사전’에 대응 영어 단어들도 부기 된 것을 알게 되면서 2~3세 교육에 필요하겠다는 50권을 구매해 간 적이 있다. 필자의 한국어 관련 저작은 이밖에도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 ‘선생님 한자책’, ‘교과서 한자어 속뜻사전’, ‘한국어 속뜻사전(앱) (구글&애플)’, ‘고품격한국어: 사자성어, 상용속담’ 등이 있다.

한국어는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특히 학습 언어의 경우 95% 이상이 한자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는 자형(모양), 자음(소리), 자의(의미)으로 나뉘는데 한국어 공부하는 많은 단어들의 자의를 자주 접하고 이와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이 달라야 하고 해외에서도 대상에 따라 달라야 할 것 같다. 먼저 대상이 누구냐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한국어를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인지 아니면 한인 2, 3세 인지를 구분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알파벳 격인 한글을 위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

반면 한인 학생의 경우 좀 더 어려운 단어 및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 외국인과 한인을 함께 교육하게 되면 한국어에 친숙한 한인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한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학생에게 한국어 사전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기기로 검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국어 사전을 이용하면 장점이 더욱 많다. 휴대기기로 검색하면 소위 QIQO(Quick In, Quick Out) 현상으로 빨리 습득하지만 빨리 잊게 된다. 하지만 종이사전을 이용하면 비슷한 단어들과 한자어 등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좀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

한국어를 잃어가는 한인 2, 3세들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학생들에게 영어는 ‘생활’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어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한국어 배우는 것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들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LA, 뉴욕, 애틀랜타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취업을 위해서도 한국어 구사 능력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걸어 다니는 사전’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디 많은 한인 학생이 한국어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부모와 한국학교, 한국어 사전 등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 **창**





- 02 창을 열며 “한인이 한국어 안 배우면 ‘기득권 포기’ 하는 것”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04 특집 ‘2024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나만 알고 있는 옛날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동포문학상, 마라톤 구간 중 설치된 식수대같은 존재”
“소설의 매력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것”
- 12 기획 트럼프 재집권과 주류사회 진출 한인정치인
121년 한인 미국 이민사에 새로운 장 연 쾌거
“한인의 가능성·성취가능한 것 보여줄 것”
‘3선 성공’ 한 중진의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등 힘쓸 것”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서 태어난 한국계 ‘순자씨’ ... “난 한국의 딸”
미국 연방의원 첫 입성 “한국계 진출 더 많아져야”
- 18 이슈 & 화제 재미동포,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418억원 기부
‘입양인들의 고향’...경기도 파주 엄마품동산 변화 제막식
- 20 정책 돋보기 “국내 고려인 청소년은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 인식해야”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 대규모 ‘정전 피해’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 지원 외
- 24 뉴스 속으로 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 추진
- 25 기고문 동포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한국문화유산
송성분 캐나다 써리한국어학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분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에 장혜영(시) · 조성국(소설) · 이명란(수필 · 수기)

재외동포청, 수상작 발표...시, 소설, 수필 · 수기 3개 부문 13명 선정

재외동포 문학은 펜 끝에 새겨진 모국을 향한 그리움을 한글로 전하는 이야기다. 재외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담아낸 작품들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삶을 연결해 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700만 재외동포들간 나아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써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 장혜영(아랍 에미리트)의 '모시', 단편소설 부문 조성국(미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수필·수기 부문 이명란(뉴질랜드)의 '이웃집 여자 린다'가 각각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함께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총 13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안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수상자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심사는 문태준, 정호승(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이경자(이상 수필·수기 부문) 등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과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출해 심사가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문학상 공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3개 부문에서 이뤄졌고, 전 세계 53개국에서 504명이 1천304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특히 올해 수상 부문과 상금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접수작이 84% 증가해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조성국 작가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 한인 문학도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카디예프 문학상', '쿠프린 문학상' 등을 수상한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등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다.

이상덕 청장은 "2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재외동포 문학상'은 꾸준히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돼 재외동포 문학 저변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을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외동포의 창'은 이번 11월호에 수필·수기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명란(뉴질랜드) 작가, 단편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조성국 작가,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상 작가와의 서면 인터뷰와 시·수필 부문 대상 작품을 특집으로 실었다. [창](#)

“나만 알고 있는 옛날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이명란 작가 “700만 동포는 한국에서 보다 더 한국 사랑하는 사람들”

“수상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기뻐던지 실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웃었습니다.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기에 그 감정의 기억에 따라 편하게 써 내려갔던 글입니다.”

2024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에서 ‘이웃집 여자 린다’로 수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명란(60·뉴질랜드 거주) 작가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신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2002년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났다. ‘이웃집 여자 린다’가 공식적인 첫 작품이라는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뉴질랜드에선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에 이곳 오uckland 교민사회를 웅성웅성 일렁이게 하는 큰 뉴스였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모든 교민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채식주의자’를 읽고 옴니버스식 구성이 신선했고 글 전체에 스며 있는 몽환적 서사와 담백함이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책들을 다 읽어보며 그 필력이 그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작가가 있는지.

“박완서, 신경숙, 양귀자 작가 등 웬만한 소설은 다 좋아합니다. 특히 오정희님의 ‘중국인 거리’, 김승옥님의 ‘무진기행’ 같은 근·현대 소설도 좋아합니다. 김영현님의 ‘겨울날의 초상’, 황경신님의 ‘국경의 도서관’, ‘밤 열한시’ 등의 산문스타일도 좋아합니다.”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푸드 크리에이터 (Food Creator)로 의뢰가 있을 때마다 뉴질랜드 현지인을 대상으로 요리강좌(김치, 불고기, 김밥 등)를 하고 있으며 30여년간 해왔던 종이공예 경험으로 현지 고등학교의 이브닝클래스(Adlet Class)에서 종이공예 수업을 하곤 합니다. 영



어로 수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것을 알리고 함께 나누는 점에 의미를 두고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나 모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교민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보다 더 지독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이 무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외 거주 700만 명 동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런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 번의 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민망한 것 같아요. 얼마전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와 한승원 작가의 ‘물에 잠긴 아버지’를 읽었습니다. 울림이 컸지요. 이 작품들처럼 나만 알고 있는 옛날이야기를 한 번쯤 써보고 싶습니다.”

“동포문학상, 마라톤 구간 중 설치된 식수대같은 존재”

조성국 작가 “대상 수상은 31년 이민생활 중 가장 환호할 만한 사건”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은 31년 이민생활 중 가장 환호할 만한 사건입니다. 수상 소식이 놀라기도 했지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매년 제게 주어지는 축제였거든요. 한 해를 통틀어 준비하며 설레이는 축제에 더 이상 응모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26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에서 ‘낙원에 있으리라’로 단편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성국(58·미국 하와이 거주) 작가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수상작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66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나고 자란 조 작가는 인하대 고분자 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도이다. 졸업 후 두산산업에 근무하다 1993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 가서 경영대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현재는 부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상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재외동포문학상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뭔가 갑자기 막 쓰고 싶어졌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정서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썼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소설적인 기교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사람을 위한 문학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작가는 “재외동포문학상이 마라톤 구간 중에 설치된 식수대 같은 존재이자, 카니발 같은 축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국에 살다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그날 한계가 있는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니까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마치 겨울잠을 자다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4~5년 보내다보니까 매년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하와이에서도 고국 못지 않게 화제가 됐다고 했다. “하와이 문인협회에서 한강 작가 작품을 다루는 특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예전에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몽고반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정말 독특한 스타일의 작가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오래 남고, 지금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몽고반점 전문이 남아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작가라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아내와 하고 있는 편의점 일을 계속하며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 관심을 보이다 쓰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지금처럼 아주 즐기며 써 갈 예정”이라고 했다.

차세대 동포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쓰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주위에 하고 싶은 내용을 쓰다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어떤 문학 공모전에 응모해도 좋고, 그냥 재미로 해도 정말 좋은 것이 글쓰기입니다. 저처럼 관련 경력이나 교육 배경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들을 꺼내 놓으면 많은 것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장]**

“소설의 매력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것”

이준상 작가 “앞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담아내는 글 쓰겠다”

“재외동포문학상에 선정된 것에 특별히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떠돌이’의 정체성이 담긴 글이기에 재외동포문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26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에서 ‘팔마 데 마요르카(Palma de Mallorca)’로 단편소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상(31·영국 거주) 작가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해외에서 생활했고, 영국에서 대학 과정을 보내며 9년째 살고 있다. 현재 재료공학·물리학 전공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이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그는 “이 둘을 동시에 병행하기가 벅차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설가로 등단한 계기나 배경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독립 영화를 찍기 위해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다양한 글에 관심이 생겼고,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던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외에 살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소설의 인물로 관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모순덩어리인 인간과 제 자신을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둘씩 옮겨 적었습니다. 솔한 이들과 부딪히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자부심으로 여기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소설가와 작품을 소개해주세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소설을 아주 천천히 읽는 편인데요, 오랫동안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가득 함축된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곱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토르 위고 또는 서머싯 몸의 소설을 즐겨 읽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공학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를 좋아합니다.”

과거 수상 경력은요?




“단편소설 ‘Oui’가 2023년 제17회 쿨투라 신인상에 당선됐고, 같은 해 아르코 문학창작 기금 발표지원에 단편소설 ‘하이에나’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소설을 읽고 난 후 단 한 가지의 질문만이라도 머릿속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소설의 매력은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독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주세요.

“누군가 모든 창작은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어를 나란히 병치했을 때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게 한국 문학과 공학 연구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을 때, 제 문학과 연구의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스스로를 담아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모시

장혜영

아, 땀구나
가마솥더위 날씨

바다 건너 일년내내
한더위의 대지

나를 걱정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내 모시 민소매 꺼내입은 나는
견딜만한 날씨가 답하며
그새 서천 할머니 생각에 잠긴다

정초에 북두칠성 하늘나라 가신 할머니가
여름이면 누르고 단단한 앞니로
물고 쪼개 만드시던 모시

시골집 녹녹한 건넌방에서
가끔 물것 지네 나오는 곳에서
반진고리 옆에 두고 모시 베를 두고
어린날 어머니 아버지 벼개말 곁에 누고
침질에 모시짜기 하셨겠지

우리 식구 연(緣)마냥 질긴
연중 여름나기가 개운한 위로로
돌아오는 내 살 감싼 모시

모시옷 입고 자라
피약별 모래바람 바닷바람 아래서도
건재하는 내모습 우리모습
하늘에서도 보고 계실게다

이곳 아낙네들도 전통 수공예,
자수(알-사두(AL-SADU), 탈리(TALLI))하며
나날을 살았다는데 타향살이 민속촌서
베를, 자수대 앞 다른 할마이들 굵은 등 거친 손에
우리 할머니 모시쪼갬 떠올린다

이골날 때까지 짜인
한필 한필 켜켜이 쌓인
아낙네들의 희로애락

그네들의 하소연 담긴 사랑방서
시집살이 지청구 모시 잎 털듯
떨쳐내는 노동요 지지귀는 듯

수많은 할머니들 어머니들
순치(脣齒)내어 쪼개어 이은 질긴 모시
베질 위 절절히 흐르는 내리사랑에
어느 물쿤 날씨도 견뎌내어라 **창**

이웃집 여자 린다

이명란

옆집과 우리집은 낮은 담장 하나로 이웃하고 있다.

무르팍 높이 만큼이나 될까 이 낮은 담장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

이사짐을 풀고 난 후 어느 날 코벨소 같은 옆집 여자를 보았다. 어찌나 첫인상이 무섭고 안 좋던지 당장 담장을 높여야겠다 했던만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낮은 담장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갈색머리 여자와 그 세상을 살아 내야만 하는 검은 머리 여자가 나란히 살고 있다.

20여년전 마주했던 그녀, 거칠고 투명스러운 이웃집 그 여자를 대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친절할 이웃을 고대했지만 그 둔탁한 몸이 신경질적이고 괴팍하기까지 한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 번은 우편물이 그 집 우체통으로 잘못 배달되었는지 그 낮은 담장 너머에서 획 하고 던져 버리는 그녀를 보았다. 어찌 해야 할지 갑갑한 날도 많았다. 그러나 전해주는 방법이 형편이 없었던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임자에게 잘 전해주긴 한 것이었다. 중요한 우편물이었는데 고마운 일이었다.

그렇게 일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잊고 살던 진실 한가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흐름 뒤에는 분명 변화되어 달라진 결과물이 함께 온다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피부가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 여자 린다와 커피 한잔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녀의 집에서 말이다. 그때도 그녀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넘어오란 손짓을 했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무슨 일인가 싶어 함부로 반가워할 수도 없었다.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물론 눈치껏 하는 어림짐작의 대화였지만 'Are you OK' 이를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걱정 어린 눈빛이 너무도 생소했다. 혹시나 전날밤 속상한 일이 있어 식탁 앞에 앉아 한없이 울고 있던 나를 본 것은 아닌지 싶었다. 관심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부엌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우리는 같은 언어로 그러나 제 각각의 의미로 서로를 알아 갔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에게 바디 랭귀지가 최상의 소통 이었다.

그리고 결국 두꺼운 갑옷에 무서운 뿔을 달고 있는 코벨소를 닮은 그녀도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유순한 초식동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는 중천에 떠 있건만 오늘도 여름이라 하기에는 서늘하다. 마당 귀퉁이에 일궈 놓은 한줌 텃밭에서 귀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깻잎을 보러 나갔다. 담장 넘어 이웃집 여자 린다와 눈이 마주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 버드장머리 없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넘어오란 손짓을 한다. 아마도 새로 시작한 퍼즐을 끝냈나 보다.

린다는 퍼즐의 여왕이다. 그 두툼한 손가락으로 작은 퍼즐 조각을 잘도 집어 맞춘다. 얼마전부터 1000피스짜리 퍼즐을 시작한다 하더니 거의 끝내고 있었다. 그 의기양양한 눈빛에 엄지 손가락을 세우고 '굿 잡' 을 씩 주었다.

햇살 찬란한 에메랄드 빛 바다와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산등성이에는 모형 같은 형형색색의 집들이 끼워 맞춘 듯이 서있는 이탈리아 포지타노(POSITANO)의 풍경이 었다. 아름다웠다. 어쩌면 린다가 한 순간이라도 머물고 싶었던 곳은 아닐까 마음이 아련하다.

가장자리부터 메꿔 나가는 것이 분명 쉬울 텐데 린다는 그녀의 무지한 독심처럼 가운데 그림 조각부터 끼웠다 빼기를 반복하며 인상을 쓰곤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느 명상가의 하루처럼 한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퍼즐을 완성해낸다.

그녀 나이 열 일곱, 철부지 사랑 놀음에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다. 엄마가 되고 동시에 맞은 배신과 곧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끝내 맞은 파경. 두려움에 눈물조차 여유가 없었다. 그 끝도 없는 나락의 바닥에서 그녀는 또 다른 사내의 품에 의지하였지만 그곳에는 폭력과 보라 빛 멍 자국만 선명한 더욱 지독한 절망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의 저주가 분명했다. 이 세상에서 그녀의 호흡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저

칠혹 같이 깊고 습한, 가슴 속에 뚫린 동굴에서만 허락된 신음이었다.

단추가 잘못 꿰어진 탓이었을까 계속된 불행과 상처 증오와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한 총체적인 결핍이 그녀의 삶을 파산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린다는 세상의 문을 닫은 채 살게 되었다.

충동적이었으며 무지했던 그러므로 일그러진 삶의 파편들, 그 망각되지 못한 상처들의 굴레에 갇혀 살아야 했던 이웃집 여자 린다. 제대로 천천히 어른이 되었더라면 그녀의 가슴에는 어쩌면 웅달샘이, 그도 아니라면 최소한 깊고 습한 동굴의 어둠을 감웃으로 입고 살지는 않았을 것을, 연민의 감정이 물결친다.

그리고 그녀의 담장 너머에 살고 있는 내게도 새로운 이곳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영어라는 언어가 참 단순치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특히나 'Idom' 이라 하는 관용어구(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생성하는 어구)의 사용이 많은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귀가 열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언어 문제 뿐만이 아니었다. 이곳 생활의 모든 면을 책으로 배워온 나에게 이민 생활이라는 것은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영어공부와 같았다.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치다 보니 하루하루 생채기를 달고 산다. 가끔씩은 한국 지하철에서 보았던 방글라데시인들이 생각한다. 지금 이곳에서 나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닌 그저 언어가 서투르고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일 뿐이다.

그러한 날 중의 하루였다. 아들녀석의 중학교(Intermediate) 졸업식과 딸아이의 초등학교(Primary) 졸업식이 한 날 한시에 있다고 한다. 난감한 일이었다. 이민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부탁할 사람 하나 마땅치 않은 이곳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린다의 이웃집에 사는 검은 머리 그녀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아들녀석을 학교 입구에 내려주고 '바빠 오겠 노랴' 한 마디 남기고 딸 아이의 학교로 향했다. 눈물 한 모금이 짙끔했다. 평탄하게 살아왔던 나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담장을 넘듯 건너온 지금의 이 시간과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가 파래진다.

초등학교의 졸업식이었음에도 더디 끝났다. 서둘러 아들녀석의 학교로 와보니 졸업식은 끝나고 여기저기 사진에 찍히는 기쁨들만 가득했다. 가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들을 찾기에 마음이 바빠졌다. 그때 낯선 모습들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한다. 저쪽 편에서 원피스를 입은 똥땡이 린다가, 코뿔소 린다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몇일 전 나의 녀두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었나 보다.

택시를 불러 타고 왔단다. 부모한테조차 외면당했던 린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던 집을 린다에게 미안함으로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거의 20여년을 정부주택에서 생활 보호대상자로만 살아왔던 린다가 낮은 담장이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차고에는 차가 한 대도 없다.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그녀에게 차는 필요치 않았다. 그런 린다가 택시를 타고 그녀의 동굴에서 나온 것이다.

처음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병원을 갈 일이 생겼었다. 급한 마음에 이웃집 린다에게 도움을 청하였었지만 짜증나는 말투와 마지 못해 준 Yello Book(전화번호부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러 했던 그녀가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해 택시를 타고 원피스를 입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지난 일 년간의 그 시간은 분명 무심히 지나가지는 않은 듯하다.

아침나절의 속상함을 날려 버리기에 충분한 기쁨과 감동이었다. 아들 녀석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으나 두 아이들의 졸업식을 잘 마쳤으니 당연히 감사한 일 이었다. 그리고 분명 거기에선 더 깊은 환희도 있었다.

어느 날 검은 머리의 동양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창문 너머의 그 여자는 매일 저녁마다 울고 있었다고, 어디에도 쓸모 없는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도움을 청하기도 한 그 동양여자가 처음에는 귀찮고 이상하였었다고 하지만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훗날 린다는 말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연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보다. 나 또한 그녀에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나 보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 모습이 창문 너머 그녀에게는 결핍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다. 이런 나의 결핍이 오히려 보라 빛 명으로 타버린 그 여자, 린다의 무겁고도 공허한 결핍을 채우는 첫 걸음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드는 저녁이다.

한국에서라면 근처에도 안 갔을 그런 여자가 이제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상관이라, 각자의 결핍이 서로를 채워 살게 한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을.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갈색머리 여자와 이 곳 뉴질랜드에서 험난했던 세상살이를 훈장으로 여기는 검은머리 여자가 도란도란 함께 늙어가고 있다. 그 나지막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저녁에 부는 바람이 좋다. 테크에 나와 보니 옆집 창문 너머로 고개 숙인 린다가 보인다. 그녀는 오늘도 퍼즐을 맞추고 있다. **장**

121년 한인 미국 이민사에 새로운 장 연 쾌거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한인 정치인들에 축전 “동포사회 높아진 위상 보여줘”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뉴저지) 당선인(왼쪽)과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당선인(가운데)이 14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위원회(CKA) 연례 갈라 행사에서 만나 포즈를 취했다.

한인(韓人)들이 1903년 미국 하와이로 이주한 이래 121년 미국 이민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앤디 김(42·민주당)이 한국계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뉴저지 첫 아시아계 연방 하원의원’과 ‘한국계 미국인 첫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신기록도 세웠다.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국계 메릴랜드 스트리클랜드(61·민주)와 공화당 영 김(61)의원도 3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캘리포니아 47선거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48·민주)도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

남가주 한인 정계의 대표격인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의원의 캘리포니아 45지구는 선거 후 보름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200여 표 차 초박빙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피말리는 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 선거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의원에 진출한 패티 김을 비롯해 10명 이상의 우리 동포가 당선됐다.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은 미국 정치권에서 ‘코리안 파워’를 과

시하며 향후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미국 연방 의원 및 주(州)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동포 정치인들에게 20일 축전을 보냈다.

이 청장은 축전에서 “우리 동포 정치인들이 당선된 것은 높아진 동포사회의 위상을 보여준다”면서 “이번에 당선된 우리 동포들이 미국 내 우리 동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등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연방 하원 의원 출마자 미셸 박 스틸을 비롯해 아직 당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 동포 출마자들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총선에서 당선된 고려인 하원의원 2명에게도 축전을 보냈다. 고려인 출신 첫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 자유민주당 소속인 박 빅토르(65) 씨는 이번엔 3선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했던 이슬로노바 엠마(50)의원도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위원회(CKA) 갈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인의 가능성 · 성취가능한 것 보여줄 것”

“‘미국우선주의=미국유일주의’ 되면 안돼...동맹에 등 돌리지 말아야”

한인으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42·민주·뉴저지)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위원회(CKA) 연례 갈라 행사에서 연설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묻자 “(내년 1월 상원의원 취임 후) 인준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지명된 일부 인사는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인사를 거명하지 않은 채 “연합뜻이 맞는 국가들간의 연합체)과 동맹을 존중하지 않고, 한미관계에 대해 응당 해야 할 존중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맹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상원의원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시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미국에서 한인이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42·민주) 당선인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 일부 인사 우려스럽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채운 수백명의 재미 한인들은 120년에 이르는 미주 한인 이민사의 새 역사를 쓴 김 의원의 당선을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뻐했다.

뜨거운 환호 속에 연단에 선 김 의원은 자신이 상원의원직 도전을 결단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당신은 뉴저지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소수자’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닮은 사람(한인 및 아시아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일뿐 아니라 한 사람의 미국인”이라고 밝힌 뒤 “이것은 꽤나 근본적인 문제”라며 미국 사회와 정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종적 편견의 존재를 거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음 10년은 미국 정치에서 한국계와 아시아계에게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10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 위해 싸우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NYT “앤디김 상원 당선으로 뉴저지 한인사회에 이목”

한편,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북부 버겐카운

티의 한인 커뮤니티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냈다.

신문은 김 의원의 상원의원 당선에 대해 “이 중요한 사건은 한 반도에서 첫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지 100년이 넘어서야 이뤄졌다”며 “이는 관심받는 것에 익숙치 않아 하는 한인 사회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했다”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5일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53.5% 득표율로 공화당 소속 경쟁자인 커티스 바쇼 후보를 9%포인트 이상 따돌리고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최대 밀집지역이라고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흔적이 뉴저지 북부만큼 뚜렷한 곳은 없다”라고 평가했다.

NYT가 언급한 한인 밀집 지역은 뉴저지 북부의 뉴욕과 인접한 버겐카운티 일부 지역을 가리킨다.

수십 년 전 한국에서 낫선 땅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들은 주로 뉴욕시 퀸스 일대에 정착했고, 퀸스 일대는 현재까지도 미 동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찾아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시와 바로 마주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로 이주했고, 이를 중심으로 뉴저지주 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갔다.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지인 팰리세이드파크시의 경우 인구 2만명 중 약 52%가 한국계로,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한인 인구 비중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

‘3선 성공’ 한 중진의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등 힘쓸 것”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영 김(62·공화) 의원은 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3선’으로 더해진 정치적 무게감으로 한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뒤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22년 직접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미국이 우방 국가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전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의 꾸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로는 선거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문답.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의회 회기를 끝내기 위해서 워싱턴DC로 돌아간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다음 주에 하원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선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국제관계(외교)위원회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한미 관계나 한반도 문제, 중국과 대만 관계 등 여러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 억지력(deterrence)을 키워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교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에 파병하는 등 국제사회에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나.



3선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영 김 의원.

동료 의원들 중,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파악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통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통과시켜서도 안 되고 그것이 다시 재상정돼서도 안 된다.

이번에 3선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팀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열심히 일했다. 선거 기간에 200 명이 넘는 인턴들이 활동했고, 이들과 함께 유권자들을 직접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총 21만 가구를 만났다. 전화로는 거의 60만 이상 가구에 연락해 얘기했다. 그들에게 내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 상담으로 실제 해결한 것만 거의 6천개가 된다. 이렇게 ‘영 김 의원이 그동안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직접 실행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부각한 것이 인정받았다고 본다. **장**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서 태어난 한국계 ‘순자씨’ ... “난 한국의 딸”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연방 하원 의원에게는 항상 ‘첫’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4년 전인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며 워싱턴주의 첫 흑인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 2022년 재선에 이어 이번에도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노던 생명보험사, 스타벅스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그는 타코마 시의원으로 선출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년간의 시의회 경험 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코마 시장을 지냈다.

타코마 시장으로는 첫 동양계였으며, 흑인 여성으로서 타코마 시장에 당선된 것도 처음이었다. 시장직을 마친 뒤에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 이름 ‘순자’로 잘 알려진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1962년 9월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6·25전쟁 미군 참전용사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살 때 아버지의 근무지 이동배치로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워싱턴주립대를 거쳐 전통적인 흑인 대학인 클라크애틀랜타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월 3일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의원 취임식에서는 한복을 입고 선사해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그는 “TV로 취임식을 시청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쉽게 알아보도록 한복을 입었다”며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가 재선을 앞둔 2022년 6월 94세로 별세했다.

그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인종차별 해소와 사법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가졌다. 흑인과 아시아인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미국에서 겪어야 했던 인종차별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홈페이지는 “스트리클랜드의 부모는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별과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부모는 그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그가 얻기를 바랐으며 그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약자를 대변하라고 가르쳤다”고 소개했다.

또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메릴린은 유색인 사회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더 알려진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미국 연방하원의원.

가 직면한 구조적인 불평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자랐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너무나 자주 불공정했으며 인종과 편견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했다”며 그의 사법제도 개혁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아시아인이 때때로 갈등하고 있음을 알고 “한인사회와 흑인의 가교가 되고 싶다”며 인종 간 갈등 해소에도 관심을 보였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스스로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 2020년 첫 당선 당시 노스웨스트 아시아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흑인인 여성”이라고 했으며, “내 흑인 혈통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난 영원한 한국의 딸”이라고 말하며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자랑스러워 했다. [▶](#)

미국 연방하원 첫 입성 “한국계 진출 더 많아져야”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48·민주)은 자신의 뿌리이자 주요 지지 기반인 한인 사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州)상원의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캘리포니아 47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출마한 그는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스콧 보 후보와의 초접전 끝에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해당 선거구는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도 한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어바인과 부촌으로 꼽히는 해안 도시 라구나비치 등을 아우르는 지역이다.

그는 미국에서 한인사회가 정치력을 신장하려면 “더 많은 사람(한국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한국계로는 최초로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42·민주) 의원처럼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 당선인과의 문답.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뭐라고 보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고, 이 지역의 가치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직(주 상원의원)으로 경력을 쌓으며 기후 문제와 여성의 생식권, 총기 안전, 모두를 위한 경제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다. 이런 것들은 여기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다. 또한 그것은 워싱턴DC(연방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방 의회에 처음 입성하게 됐는데, 의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우선 저렴한 주택 공급과 기후 문제를 위해 일하고 싶다. 지역의 치안을 위한 경찰력 강화도 중요하다.

또 나는 여기 어바인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계를 비롯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가치를 옹호하고, 증오와 싸우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

미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이 얼마나 커졌다고 보나.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 앤디 김이 미 상원에 진출한 만큼, 한국계 미국인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위해 계속 싸우고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그동안 많은 한국계 젊은이들로부터 자신과 닮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연방 하원의원으로는 초선이라 아직 정치인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소개한다면.

내 부모님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자랐고 1970년에 미국에 와 여기에 정착했다. 나는 운 좋게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수 있었고, 내 남동생은 스탠퍼드대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됐다. 우리 가족은 모든 면에서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다. [▶](#)

재미동포, 미국 여자축구에 역대최고액 418억원 기부

여성사업가 미셸 강 “경기장 안팎서 여성 축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것”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축구팀들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미셸 강(65) 회장이 미국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3천만 달러(약 418억 원)라는 큰 선물을 내놓았다.

미국축구협회는 20일(한국시간) “미셸 강 회장이 협회의 여성 및 유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는 미국축구협회의 여성 및 유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기부이자 여성의 미국축구협회 기부금 중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축구협회는 강 회장의 기부금으로 유소년 선수들의 경쟁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및 육성하며 여성 선수·코치·심판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축구협회 신디 팔로우 콘 회장은 “미셸 강의 선물은 미국의 여성 및 유소년 축구를 변화시킬 것이다. 선수, 코치, 심판을 포함한 우리 축구계에서 여러 세대의 여성 및 유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셸 덕분에 우리는 여성과 유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 되고 간과돼 왔다”면서 “저는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장 안팎에서 여성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1대, 13대 국회의원으로 여성 권익 신장에 이바지한 이윤자 전 의원의 딸이다. 서강대에 재학하다 1981년 유학길에 올랐다.

강 회장은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러먼 인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하다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를 창업했다.

최근에는 여자축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 2월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시작으로 여자축구계에 뛰어들어 강 회장은 지난해 말 잉글랜드 여자 챔피언십(2부) 런던시티 라이어니스의 구단주가 됐다.

올해 2월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UWCL)



미셸 강 회장의 기부 소식을 전한 미국축구협회 SNS.

8회 우승에 빛나는 명문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 전권을 쥐었다. 아울러 7월에는 여자축구의 프로화에 중점을 둔 세계 최초의 멀티구단 글로벌 조직 ‘키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다.

미국축구협회는 강 회장을 “전 세계 여성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선구적인 비즈니스 리더이자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

‘입양인들의 고향’...경기도 파주 엄마품동산 벽화 제막식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입양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에 힘쓸 것”



지난 2일 엄마품동산 정문 앞에 설치된 초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엄마품동산 벽화 ‘bLOSSom’ 제막식이 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소재 엄마품동산에서 거행됐다.

행사에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 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상근이사, 입양인 대표로 에스텔 쿡 심프슨(퇴역 장군), 마크 크룩 미국 미시간대 의대 교수, 유지연 노스웨스턴대 역사학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엄마품동산은 입양인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다. 6.25전쟁 때 파주시에 형성된 미군 기지촌에서 태어난 혼혈인과 해외 입양인을 위해 2017년 11월 캠프 하우스(61만808㎡) 내 2천224㎡ 규모로 조성해 2018년 9월 일부 준공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 동포인 리아 전해주, 카렌 이병숙 작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엄마품동산 정문에 어머니의 모습과

상실의 슬픔을 극복하고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은 초대형 벽화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엄마품동산을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이곳 대한민국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엄마품동산까지 멀리 찾아주신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재외동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벽화에 ‘친어머니 모습’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려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입양 동포들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특히 전 세계에 있는 입양 동포와 모국 간 유대감을 제고하고, 입양 동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입양인 동포를 위한 모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엄마품동산 정식 오픈식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뵙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내 고려인 청소년은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 인식해야”

송영호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책토론회서 제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소장 유기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국내 고려인 청소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 동포의 가족 단위 이주가 늘고 고려인 밀집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송영호 연구위원은 ‘국내 고려인 청소년 현황과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와 청소년의 현황을 소개한 후,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고려인 동포 청소년 주요 현안 3가지는 첫째,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 문제가 가장 크다.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특징 때문에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고려인 동포 청소년은 또래 그룹과의 친밀성이 크고, 당장 한국어를 못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 유인이 낮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 돌봄, 즉 방과후 학교의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돌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저조하거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

셋째,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업이 초등에서 고등까지 학습 지원 중심으로 주로 설계되어 있지만, 후기 청소년의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 가족형성에 이르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적응·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려인 청소년 지원 방안으로는 러시아어로 배우는



지난 1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어 교육,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와 지원단체(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협력센터의 공유학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교육 체계 안에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중요하다. 또 ‘고려인동포’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산출이 절실하다. 고려인 동포 국내 정착 규모, 체류자격 변경, 세대별·연령별·거주기간별·거주지별 통계 산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청년의 학교 안과 밖 규모 파악해야 한다.

특성 등 고려해 맞춤형 교육 이뤄져야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고려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실태를 소개하고, 혁신 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고려인 학생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밀집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고려인 청소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주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후원 여성가족부

‘국내 고려인 청소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주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실태(교사 인식)는 첫 번째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76.9%), 그에 따라서 교사 소진이 심화(59.1%)되고 있는데, 정책·제도적 지원은 미비(44.4%)하고, 지역사회나 구상원 간의 협력도 아주 미흡(27.8%)하다. 게다가 교사 전문성 부족(24.3%), 특히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많지 않은데,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간의 분리 현상(21.1%)이 나타나고 있다. 밀집학교 환경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우리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와 지금의 지원이 근거가 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특성, 환경, 배경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 학생은 러시아에서는 우수 학생이었으나 한국에 와서 투명인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학교의 상황을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으로 회복하는 게 혁신의 의미이고, 그것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이 혁신방안이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모두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 관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 체계 구축 방안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과정을 개발(이중언어 교육과정,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교육 필요

경희대 송석원 교수는 ‘국내 고려인 정책과 차세대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내 고려인 정책 환경과 과제, 차세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국내 거주 고려인 정책 과제로는 법적 처우 형 평성을 제시했다. 일시 체류자(외국인) 아닌 정착 주민(동포)으로 인식하고, 동포 인적자원 활용(방문취업제 폐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출신국 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차세대 고려인 동포 보듬기 정책으로 인간으로서 익혀야 할 기본교육 이외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추가되고, 거기에 세계시민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세대 고려인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국인에서 동포로 인식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내 고려인 청소년은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로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런면에서 한국이 미래 통일을 이룬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전환의 시기에 겪었던 여러 혼란과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생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국내 고려인 단체와 당사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단체, 학교 교사 등 현장 관계자들도 국내 고려인 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대규모 '정전 피해'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 지원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후 첫 사례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대규모 정전사태로 피해를 본 쿠바 한글학교에 발전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 아바나에 위치한 쿠바한글학교는 동포사회의 비상대피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 장기간의 정전으로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보관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쿠바는 노후한 화력 발전소 고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적인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오스카'와 '라파엘' 태풍에다가 지진까지 겹쳐 정부의 복구 노력에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포청은 지난 3월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지원으로 이상덕 청장은 "역사적 특수성을 안고 있는 쿠바지역 동포사회를 처음 지원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쿠바 아바나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전경.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뿌리와 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하와이 초기 이민 역사를 다룬 '하와이 연가' 상영회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하와이 한인 이민 121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 '하와이 연가(감독 이진영)' 상영회를 인천시 연수역 CGV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하와이 연가'는 1902년 조선을 떠나 하와이로 향한 이민자들과 그 후손에 대한 음악영화로,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초창기 재외동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이 영화는 그래미상 수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월드 클래스 성악가 조수미 등이 한인 이민사를 알리자는 취지에 공감해 최소한의 개런티를 받고 출연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상영회에 앞서 이진영 감독과 만난 이상덕 청장은 "이 영화는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동포사회의 뿌리는 물론, 그들의 모국에 대한 애정과 기여를 보여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하와이연가 이진영 감독과 만난 재외동포청 이상덕(오른쪽) 청장.

제작에 참여한 방경은 나우프로덕션 기획홍보이사는 상영회 이후 영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재외동포의 삶 등에 대해 동포청 직원들과 의견도 교환했다.

재외동포청-서울교육대학교,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 위해 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장신호)와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 교육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적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재외동포와 내국민 간의 유대감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글학교 역량 강화와 함께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 교육 반영, 초·중·고·대학교 대상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등 내국민 인식 확산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덕 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국내 교과서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만



지난 11일 서울교육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상덕(왼쪽) 재외동포청장과 장신호 서울교육대총장.

아니라 한글학교, 모국 방문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포청·국가유산청, 차세대 동포 정체성 교육 강화 업무협약 역사·문화·국가유산 교육 등 국가유산 이해도 제고·유대감 증진 협력도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상덕 청장과 최응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한글학교 등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국가유산 교육 관련 상호협력 ▲재외동포와 현지인 대상 국가 유산의 인식 개선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청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로, 국가유산청과 협력을 통해 정체성 교육이 활성화되고 콘텐츠가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이상덕(오른쪽) 재외동포청장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이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 추진

이상덕 청장 “행정안전부·외교부와 협의중...예산 증액 지원을”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이라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동포청 전담 인력 배치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내년부터 재외동포 분야 해외 주재관 신설을 추진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직원 해외 파견에 관해 질 의하자 “주재관 TO(정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와 지속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업무 수요 충족을 위해 정직 원을 직무 파견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 가 안 돼 있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사업, 정부 국정과제 및 정책의 효율적 시행 등 동포사회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7개 재외공관에 재외동포 담당 주재관 7명을 파견해왔다. 파견 재외공관은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 카자흐스탄 알마티,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찌민 등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기존 주재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 파견 없이 공식 상태로 유지돼왔다. 현재는 주 호찌민 총영사관에 1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며, 이 주재관은 올해 연말 파견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당면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 직원의 직무파견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주요국에 전담 인력을 우선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내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 대상 상담 업무 강화 등을 이 청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관해 꼼꼼하게 살펴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덕 청장은 국회 종합감사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이라는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동포청 전담 인력 배치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고, 동포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청은 그간 주요 공관에 동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왔는 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포사회 거점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1천67억원이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을 총괄하는 부처인 재외동포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024년 정부예산 656.7조 원의 0.016% 수준이다. 재외동포 유권자수와 비슷한 2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경상북도 예산이 약 34조원이다. 또 인구 5만4천여 명인 경북 예천군의 올해 예산이 7천566억인 점을 비교하면 재외동포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장**

동포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한국문화유산

“올해부터 캐나다에서는 매년 10월을 ‘한국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자는 저의 발안이 캐나다 상원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10월인 이유는 10월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8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씨리한국어학교 종업식 및 학예 발표회 날 참석한 한국인 최초 캐나다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은 또렷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직접 전했다. 한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축하하는 이 영상이 KBS1 다큐On 파워 오브 코리아 다큐에 실려 전 세계로 전파됐다.

캐나다는 세계 150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 국민이 이민을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모자이크의 나라이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큰 나라에서 많은 수의 이민자가 몰려 와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의 소수민족도 나름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재외동포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현지에 알리게 된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어 간다. 한국에서 장구를 가져와 가르치는 이야기는 KBS 아침마당에 소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한글교육은 멈출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한글공부의 맥을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갔다. 또 여름방학에는 온라인 역사캠프를 3주간이나 열면서 한국의 공주박물관, 경주의 문화유적지를 발로 뛰어 전해주는 선생님을 따라서 학생들은 영상 속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하는 듯한 공부로 재미와 유익



송성분 캐나다 씨리한국어학교장

함을 주었다.

캐나다는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5천년이라는 말을 하면 동포 자녀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놀라워한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역사문화캠프에 참여하는데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K-팝과 K-컬처 등으로 더욱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전통문화체험학습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복이 없어 안타까웠다. 어느 해인가 대구교육청에서 ‘작아서 입지 않는 장롱 속에서 잠자는 한복을 해외친구들에게 보내주는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부탁을 드렸더니 모집된 한복

을 많이 보내줬다.

한국인의 정(情)을 느끼며 전교생이 모두 한복을 입고 세배를 드리고 옷놀이와 제기 차기 등 전통놀이와 문화를 즐겼다. 현지 외국인들에게도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하게 하여 즐거운 설날문화를 전해줬다. 받은 한복은 이웃학교에 빌려주기도 하고, 토론토에 있는 한글학교연합회로, 중동에 있는 오만한글학교에도 보내주는 등 주변에 우리문화를 전파했다.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애국자가 된다. 그중에서도 한글학교 교사는 애국자를 뛰어넘어 독립투사라고 나는 당당하게 외친다.

한글학교 교장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나아가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한글교육과 함께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아낌없이 전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 사는 우리 동포 차세대에게 한국문화를 뿌리 깊고 단단하게 유산으로 심어주고자 한다. 장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재외동포청-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 (11월 1일)
- 재외동포청-서울교육대학교 업무협약식 (11월 11일)
-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11월 28일)

11월 재외동포청장 등정

- 1일: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업무협약식
- 2일: 파주 엠패동산 벽화 제막식
- 6일: 이진영 영화감독 면담
-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요 현안 보고
- 7일~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1일: 재외동포청-서울교육대학교 업무협약식
- 12일: 재외동포청 직원 워크숍
- 15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면담
-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8일: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분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12월 2일부터 업무개시

재외동포청은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12월 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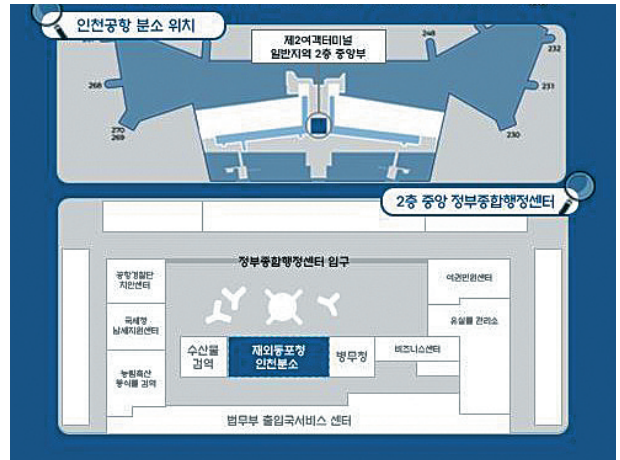
송도 소재 재외동포청 1층에 있던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업무를 종료했다.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설 인천분소 새 단장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통합민원실을 이용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인천분소가 이전함에 따라 해외에서 입·출국하는 재외동포들이 방문하기에 더욱 편리해졌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이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용하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더욱 많은 재외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합민원실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귀국신고, 통합민원 상담(전화 및 화상) 예약 및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법무(국적, 동포사증, 출입국), 병무, 가족관계, 국세, 관세, 보호,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에 관한 행정민원에 관한 사무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새 인천분소가 이전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에는 이름그대로 정부 각 부처의 민원통합실이 몰려 있어 재외동포들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는데 시너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공항 분소 위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자동출입국 심사등록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는 연중무휴로 긴급 여권발급, 여권발급 기록증명서 발급, 여권 습득 및 분실 신고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출입국자 병역사항 확인·관리, 영주권자 입영신청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외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